

승기에 취했다 '벙커'에 빠진 민주

■ '골프 외유' 악재 곤혹

1차 입법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상승 분위기로 있던 민주당이 악재를 맞았다.

이강래 노영민 박기준 박영선 양승조 우윤근 전병현 주승용 최규식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9명이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난 9일 태국의 한 골프리조트에 외유를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외유에 나선 의원들은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는 했지만 '주말'을 이용했고 '저렴한 곳에 사비'를 들인 여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할 정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시간이 짧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주말이었다고 하더라도 '회기 중 외유'와 '경제 위기 속 해외 여행'이라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웠다.

사실 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15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미국 등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철회할 정도로 여론이 정치권의 행보를 주시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모처럼 활동을 찾았던 당이 이틀발 번수 때문에 2월 임시국회 2차 입법전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입법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축 분위기가 지나쳐 아슬아슬하던 당에 기어이 사고가 터졌다"고 안타까워했고, 또 다른 당직자는 "조금 회복되던 지지율을 다 깨먹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외유 의원의 절반 가량이 미국에 체류 중인 정동영 상임고문과 가까운



태국 골프 외유 파문에 휘말린 우윤근(왼쪽),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 대표 "물의 빚어 국민께 죄송"

2차 입법전쟁 앞두고 조기 진화 부심

인사라는 점을 들어 정 의원의 복귀 물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 홈페이지에는 종일 비난 글이 쇄도했다. 주말을 이용해 사비로 다녀왔고 호화 외유가 아니었다는 당사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금요일 저녁에 가서 주최에 돌아오는 짧은 해외여행"이라면서도 "국회가 과행을 겪고 국민 걱정이 큰 상황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원들의 모든 활동이

국회 일정과 국민의 국회를 염려하는 점을 고려해 책임 있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자숙하는 태도를 더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언성을 높이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며 "특히 지금 같은 때에는 신중했어야 했는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기준, 박영선, 우윤근, 전병현 의원 등 이날 먼저 귀국한 의원들은 정 대표와 원내대표를 각각 찾아 "경위야 어찌 됐든 당과 국민에게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외서 골프·생일파티... 서민 정당 맞아?"

한나라, 민주당 '골프 외유' 비난 공세 퍼부어

고 주창하느냐"고 비판했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은 시베리아 벌판에서 떨고 있는데 일부 선량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생일을 굉장히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폭력국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폭력정당,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정작 귀족정당인 것이 바로 민주당의 혐주소

이나 소비가 얼어붙어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배우자 생일축하를 위해 8인의 국회의원이 태국에서 생일파티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폭력국회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폭력정당, 앞에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정작 귀족정당인 것이 바로 민주당의 혐주소

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말에 해외로 나가 골프를 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발견될 수도 있는 만큼 지난 친정과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보이고 있다.

나아가 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단 13일까진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이고,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놓았다"며 "현재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만수 '후임' 누굴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중폭 이상의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개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개각과 맞물려 국가정보원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 기관의 장들 가운데 일부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여권 진용 개편 시점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4대 기관장의 경우 어첨수 경찰청장과 김성호 국정원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상호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민정리안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강만수 장관 후임으로는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함께 이한재 전 경제부총리, 임태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장수만 조달청장과 함께 임재민, 이재훈 차관 등의 내부 승진설이 나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의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법무부장관에는 흥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희 전 법무차관 등이, 통일부장관에는 남성우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장,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등이, 국방부 장관에는 안광진 전 비상기획위원장,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경찰청장은 김석기 서울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국정원장은 교체로 가닥을 잡을 경우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함께 교육과학문화수석을 포함해 최대 2명 정도를 교체하는 '최소 교체원칙'을 세울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최고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이며 한국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포용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 확립 ▲북한 제제를 대화와 협력 상대로 인정 ▲평화공동체를 향해 경협을 획기적으로 확대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외교 필요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주선 의원 정책 보고서 발간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2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대의 대북정책 4대 방향과 10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최고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이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이며 한국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포용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 확립 ▲북한 제제를 대화와 협력 상대로 인정 ▲평화공동체를 향해 경협을 획기적으로 확대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외교 필요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10가지 실천 과제로 ▲비핵개발 3000' 정책 철회 또는 전면 수정을 통한 계약했다.

"대북정책 근본 변화해야"



'대북화해협력독트리'

발표 ▲6·15 공동성명

과 10·4 선언 계승과

실천 이행 선언 ▲

2007 남북총리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과

실무회담 개최 ▲대북

특사단 파견 ▲현 외

교안보팀 전면교체 ▲여야,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기업인,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남북

관계정책협의회' 구성 ▲전단지 살포 금지

법적 징지 마련 ▲남북적십자회담과 금강산

피살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대

통령 직속 기구로 가칭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설치 ▲남북관계정상화에 대한 이 대

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토론회 실시 등을 공개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글신의'에 한마디가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글신의'에 마음처럼 달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들은 도움도 살피며 대한 사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멘자일 Q10 환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급

교제비타민, 비타민 E, 칼슘, 철분과 비타민 A, C, E 및 보급

비타민 A, C, E 및 보급